

# 함평 양서파충류공원·자연생태공원 ‘통합’

공원 활성화 관람객 불편 해소  
군, 이달부터 시설 단일화 운영

함평군이 양서파충류생태공원과 함평자연생태공원을 통합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기존에 각각 운영하던 양서파충류생태공원과 함평자연생태공원을 1일자로 함평자연생태공원으로 통합해 단일 시설로 운영한다.  
기존에 발급했던 통합관광권은 이날부터 전면 폐지하고 공원별로 각각 징수하던 관람료도 단일화한다.

두 공원을 잇는 나비열차는 내년 4월 개통할 예정이며 이후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도 전면 통합한다.

다만 관람객 편의를 위해 기존 매표소 2개소는 현행대로 운영한다.

지난 2006년 함평군 대동면 은교리 일원에 조성한 자연생태공원은 나비·곤충 표



함평군은 1일자로 각각 운영하던 양서파충류생태공원(오른쪽)과 함평자연생태공원을 함평자연생태공원으로 통합해 단일 시설로 운영한다.



본전시관 등 7개의 전시시설과 반달가슴곰 관찰원 등 16개의 관람시설, 전망대, 벽천폭포 등 9개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전국 대표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이다.

지난 2014년 함평군 신광면 학동로 일원에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8만5000㎡의 부지에 연면적 2673

㎡ 규모의 별관까지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서파충류 전문 생태공원이다.

현재는 국내외 70여 종, 190여 마리의 양서파충류를 전시하고 있으며 뱀 감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강복수 함평군 산림공원사업소장은 “공

원 활성화와 개별 매표에 따른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운영을 결정했다”며 “관리적 차원의 단순 통합이 아닌 실질적 통합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자은 유전수원지.

## 신안군, 상수원 보호 구역 내 땅 매입

군, 12억 들여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 추진

신안군은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면적은 1167만㎡로 대부분 개인소유지만 토지 재산권 사용이 제한돼 있다.

군에서는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물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12억원을 들여 수원지 인근 토지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 구역 내 토지 매입을 희망

하는 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감정평가 후 등기 이전 및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투입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토지소유자 사유재산 보호와 상수원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영광군, 합계출산율 전국 2위

영광군이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전국 2위를 달성했다.

영광군은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2017년 1.54명에서 2018년 1.82명으로 0.28명 늘어 증가율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군이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결혼감소와

저출산의 복합적 원인이 되는 인구감소, 청년실업, 주거, 일·가정 양립 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영광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 최고 3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 함평경찰서 최진우 계장 업무중 사망 안타까움

함평경찰서 청문감사계장 최진우(48·사진) 경위가 지난 21일 업무 중 갑자기 사망해 그를 자주 보던 지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고(故) 최진우 경위는 평소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변의 신망이 두터웠던 경찰로 지역민의 민원을 자기 일처럼 솔선수범해 처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자체사고 예방을 위해 책자를 발간하는 등의 공로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 되었으며 국무총리 표창을 비



롯해 다수의 표창을 받아 믿음직한 경찰관으로 평가 받았다.

최 경위는 최근 반부패 대토론회 개최와 함평군청 앞 폭행사건으로 직원 징계 등 업무처리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 함평군, 귀농인 대상 현장실습교육 호응

함평군이 귀농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및 농업창업 능력 배양을 위해 지난 2006년 처음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120여명의 신규 농업인이 교육을 받았다.<사진>

주로 현장 실습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귀농인의 재배 희망 작목을 접수 받아 작목별 지역 우수농가를 연결해주는 1대1 멘토-멘티제로 운영된다.

올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도작, 약용작물, 무화과, 단호박 등 9개 품목 16명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형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인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농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역귀농 방지는 물론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 영광 한빛원전, 굴비 엮ელი끈 구매비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영광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영광굴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3년 연속 굴비 엮ელი끈 구매비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최근 영광굴비특품사업단과 '2019년 굴비업체 엮ელი끈 구매 보조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사진>

영광의 대표 특산물인 굴비는 한빛원전 소재지와 가까운 법성면에만 500여개 업체가 굴비를 가공·판매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6년부터 영광굴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굴비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엮ელი끈 구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 3년간 2억70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올해도 한 다발(10kg)에 1만원씩하는 엮ელი끈을 한 업체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총 1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 무안군, 지방재정확대 실적 평가 ‘우수’ ...특별교부세 1억 확보

무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 재정 확대 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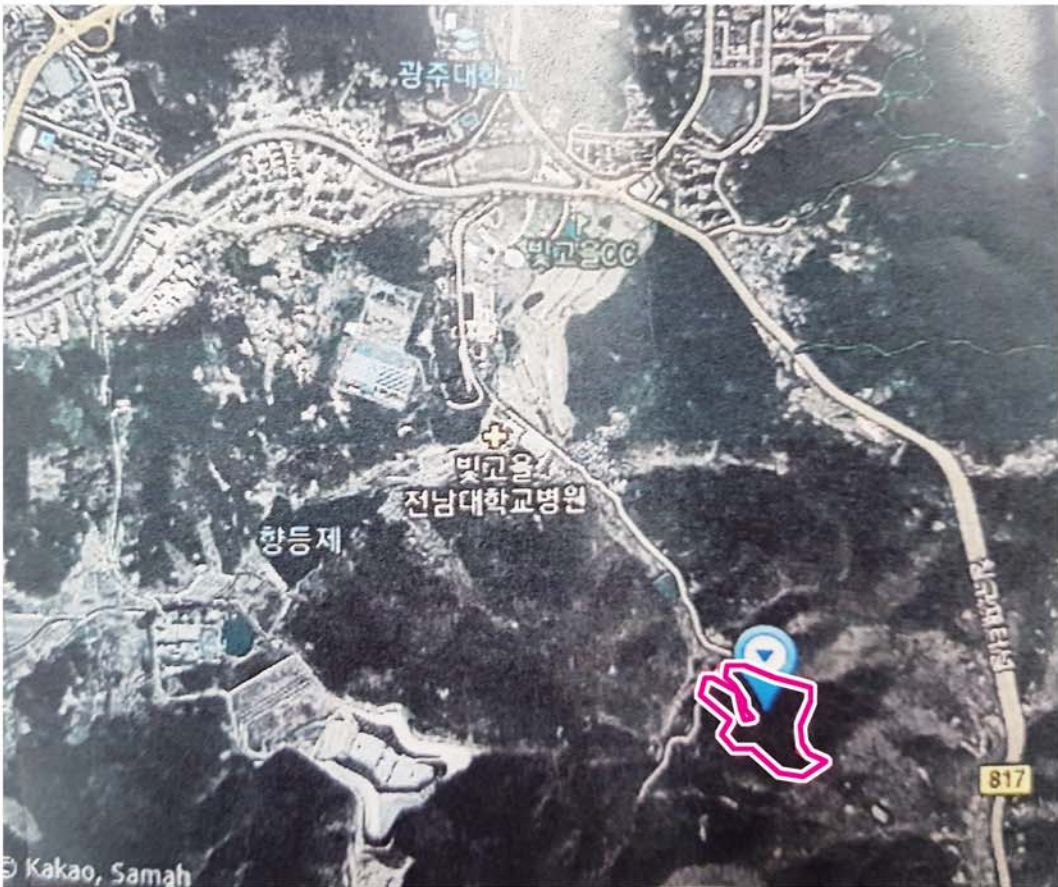
이번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결과는 재원 규모 등이 유사한 동종단체별(14개 그룹)로 구분해 추정 시기, 추정 규모, 일자리 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8개 지

표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경기 체제와 고용감소 등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무안군의 경우 제1

회 추경예산 편성을 3월에 실시했으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역시 예년보다 앞당긴 8월에 실시했다. 2회의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당초예산 4852억원 대비 1989억원 증가한 6841억원을 편성해 동종 단체 평균보다 우수한 수치를 기록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 마지막, 600평 싸게 정리합니다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